

본 문: 막 14:66-15:32

## 제 목 :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

### 1.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(막 14:66-72)

- (1)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온 베드로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여종과 함께 있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다. 세 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강하게 부인했다.  
(막 14:66-71)
- (2)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고,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울었다.  
(막 14:72)

### 2. 빌라도의 심문(막 15:1-15)

- (1)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가 법정에서 세웠다. 예수님은 빌라도의 “네가 유대인이 왕이냐”라는 질문만 답하시고 침묵하셨다.  
(막 15:1-5)
- (2)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유월절 특별사면으로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권했다.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바라바를 놓아 주라고 했다.  
(막 15:6-11)

- (3)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다.  
(막 15:12-15)

### 3.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(막 15:16-20)

- (1)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“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어다”라며 조롱했다.  
(막 15:16-20)

### 4.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(막 15:21-32)

- (1)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인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했다. 그런데 심한 매질을 당한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.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. 그런데 이후 시몬의 아들 루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, 루포의 어머니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.  
(막 15:21-23)
- (2) 로마 군인들은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. 대제사장과 지나가던 자들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욕하고 조롱했다.  
(막 15:24-32)